

1950년대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와 의미*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 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문학·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KEYWORDS 문화냉전, 공공외교, 미국 도서번역 사업, 주한 미공보원

* 2014년도 충남대학교 재직교원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jycha@cnu.ac.kr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패권국가로 떠오른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수단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해외 대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상으로 한 문화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외교를 광범위하게 전개한 것으로 밝혀졌다(Richmond, 2003; Osgood, 2006; Cull, 2008). 그러한 문화적 자원으로는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음악이나 미술 등 각종 예술 부문도 동원되었으며, 여러 가지 학술적 주제나 문학, 역사 등을 다룬 도서들도 활용되었다. 여기서 신문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는 보다 신속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예술이나 도서 등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특히 냉전의 와중에서 미국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해외 도서 프로그램 가운데 미국 도서의 외국어 번역출판은 현지 지식층과 대중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이런 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도서번역 사업이 당시 “미국정부 도서 프로그램의 주축”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허은, 2013, 583쪽).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서번역 사업을 전개했는데, 물론 한국도 주요 대상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는 교두보로서, 또 자유 진영을 대표해 공산 진영의 북한과 경쟁하는 최전선 국가로서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미국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razinsky, 2007). 미국정부의 이 같은 광범위한 개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정부가 1950년대에 한국에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식민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후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정부와 지식인들은 번역 출판이 ‘국가발전’과 ‘문화적 후진성 극복’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구미 선진국들의 많은 도서들이 역간되었다(문교부, 1958; 신집호, 1959; 홍효민, 1959). 이 같은 작업은 대체로 한국정부와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강력한 후견자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개입했듯이 도서 번역 출판 부문에도 매우 폭넓게 관여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냉전기 도서번역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다양한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나서, 수집된 1차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정부가 1950년대에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후에, 그 사업의 목적과 주요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결론에서 그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1950년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당사가 휴전 이후 한국사회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재건되는 시기였을 뿐 아니라, 한국의 출판업계나 학술 분야 등도 아직 기반이 매우 취약해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이 미군정기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체계화된 것은 195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먼저 국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냉전 초기에 한국에서 시행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박지영(2009; 2010)은 미군정기와 1950년대 번역출판 부문에서의 문화정치를 분석하면서, “미군정기부터 번역정책은 … 점령국 민중들에게 미국이 자유주의의 중주국이라는 환타지를 심기 위한 하나의 문화정책”이었고, “1950년대 이후에도 미공보원과 미국원조기관 등을 통해 번역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2010, 477쪽). 그의 연구는 이종연(2005)과 김균(2007) 등의 저작들과 당시에 발행된 신문 및 잡지, 그리고 출판인의 회고록 등 주로 국내 문헌에 의존하여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정부의 문서 자료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허은(2009)은 김용권(1967)의 연구를 인용하여 한국에서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을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으로 보았고, 1961년도 주한 미공보원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1957년에 61권의 번역서 출간으로 그 사업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그해 상반기까지 미공보원의 지원으로 출간된 책이 모두 310권에 달했다고 주장했다(253, 257~258쪽). 하지만 그는 냉전기 동일화를 위한 미국의 문화적 개입과 그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반응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미공보원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했을 뿐, 그 사업의 내용이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허은(2013)의 후속 연구는 1950~1960년대에 미국이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 포섭하기 위해 번역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

용했는지 분석하면서 한국의 사례들도 같이 다루었고, 덧붙여 이러한 미국의 도서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반응에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균열의 조짐을 해독해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장영민(2009, 2011)은 한국전쟁 시기에 미공보원이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시행한 선전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가운데, 도서번역과 출판지원 사업도 포함해서 다루었다. 그는 한국전쟁 기간에 시행되었던 이런 사업에 관한 많은 미국정부 자료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지만, 한국전쟁 기간으로만 연구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1950년대에 미국이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고, 비판적인 역사 문헌자료 접근 방법을 활용해 미국 국가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들과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 및 기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1950년대 미국의 해외 도서 프로그램

대체로 미국정부는 1940년대부터 도서를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배후지로 간주하고 있던 라틴아메리카에 추축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려해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1942년에 멕시코시티를 시작으로 중남미 전역에 열람실이나 도서관을 포함한 공보원(information center)을 설치해나갔던 것이다(Kraske, 1985). 전쟁 중에 미군이 주둔하거나 점령한 다수 지역에도 공보원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현지 대중에게 미국이 전쟁에서 수행하는 역할 외에도 미국의 유산이나 역사,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 등을 알려주기 위해 미국에서 출간된 다양한 주제 영역의 도서나 정기간행물들이 비치되었다고 한다.

출판업계 단체인 전시도서위원회(Council on Books in Wartime)는 미국정부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한 보고서에서 전쟁과 관련한 도서의 역할을 “도서는 이념 전쟁의 무기”라는 슬로건으로 간결하게 규정했다(Hench, 2000, p. 45 재인용). 또한 전쟁 중에 미국의 대외선전을 총괄했던 전쟁공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도 도서가 “가장

내구성이 강한 선전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다른 선전 수단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대상의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도서는 대중의 마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주조하는 사람들, 즉 사상의 지도자들이나 여론의 형성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p. 70 재인용). 이처럼 미국의 관민이 공히 일찍부터 선전을 위한 도서의 유용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잠시 위축되었던 미국의 공공외교는 냉전이 심화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미군의 점령지역인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에서는 전쟁성과 현지의 미군정 공보교육 부서가 도서를 포함한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했으며, 그 밖의 다른 국가들과 점령이 종결된 지역들에서는 국무성의 국제공보국(Inter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그 뒤를 이은 대외공보국(USIA)이 책임을 맡았다. 1950년대 초에 냉전이 격화되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해외 수용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했지만, 미국의 대외공보 관계자들 사이에 도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확고했다. 1951년에 트루먼대통령이 여러 정부부처의 대외공보 프로그램들을 통괄하기 위해 설립한 심리전략위원회(Psychological Strategy Board: PSB)는 1953년도 보고서에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아직 새롭고, 잡지는 유통부수가 적으며, 신문은 대개 이미 스스로 의견을 형성한 집단들 내에서 유통되는 데에 반해…도서는 지식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Osgood, 2006, p. 294 재인용).

1953년에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심리전략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부속기구로 설립했던 활동조정위원회(Operations Coordination Board: OCB)도 1954년도 보고서에서, 해외 도서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국의 “지도층과 독자 집단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동과 극동 지역 여러 나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현재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도층의 뿌리에까지 도달할 기회를 열어준다”고 강조했다.¹⁾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이나 과학, 전문직, 기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이룬 양질의 업적을 전 세계에 나눠줘야 할 필요 때문이라도, 차후 반세기 동안 해외에서 미국 도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냉전기에 미국정부가 해외 독자들에게 미국의 도서를 제공했던 프로그램이나 제도로

1)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1954, Report of OCB Working Group on Books, RG 59, Executive Secretariat, Subject and Special Files, 1953~1961, Box 36, pp. 1~2.

는 첫째 해외 주재 미공보원(USIS)에 개설했던 열람실이나 도서관, 둘째 외환 거래가 규제 되는 해외 시장에서 도서나 음반, 영화 등을 판매하는 미국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미화 수입을 보장해준 프로그램(Information Media Guarantee: IMG), 셋째 외국 학교에 교과서나 과학 서적 등을 기부하거나 원조하는 프로그램, 넷째 해외 시장에서 미국 도서들을 번역, 출판, 판매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Barnhisel, 2015). 하지만 미공보원이나 IMG 등을 통해 미국의 원서를 해외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데는 아무래도 영어 해독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독자층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외국어로 역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정부는 1947년부터 도서번역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외 주재 미국 공관이나 미공보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도서번역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²⁾ 먼저 현지 출판시장에 적합한 미국 도서들을 선정하고, 도서를 출판할 능력을 가진 현지 출판업자를 모색하며, 해당 도서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번역 출판 권리를 유리하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때로는 적합한 번역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며, 출판 후에는 해당 번역서를 현지인들에게 배부하거나 미문화원이나 열람실에 비치해두기 위해 다량의 부수를 구매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절차는 철저하게 해외 주재 미국 공관이나 공보원의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미국 정부의 주관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 공관이나 미공보원은 반드시 미국 도서를 번역할 의사를 가진 현지 출판업자에게 일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해야 하고, 만약 후자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성이 대신하여 저작권자와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 출판업자의 이름, 제안된 발행부수, 내용 수정 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했다.³⁾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정부가 미국 도서를 특정 외국어로 번역해 출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⁴⁾ 앞에서 보았듯이, 번역서를 출판하려는 현지 출판업자를 대리해 저작권자와 섭외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목적인 수준에서나마 저작권료를 대납해주기도 했다. 또한 현지 출판업자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나 현지

2)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51, Launching Books in Foreign Countries, RG 306, Historical Collection Subject Files, 1953~2000, Box 174; USIA, 1957, Book Translation Handbook, RG 306, Historical Collection Subject Files, 1953~2000, Box 185.

3) USIA, 1957, Book Translation Handbook, p. 16.

4) USIA, 1957, Book Translation Handbook, pp. 12~13.

출판시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특정 도서를 미국 정부가 반드시 번역 출판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에게 번역료를 포함해 제작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처럼 출판을 위해 필요한 용지가 국내시장에 부족한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용지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번역본이 출판된 후에 미국의 공관이나 공보원이 현지 증정을 위해서든, 도서실에 비치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미공보원에 배부하기 위해서든 간에, 대량으로 그 책을 구매했던 것도 사실은 현지 출판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판매가격을 낮추어 다수의 현지 독자들이 구입해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일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현지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졌다(Barnhisel, 2015). 사실 미공보원에 비치되어 있는 미국 도서들이나 잡지들은 미국정부가 배정한 예산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번역 사업을 통해 출판된 도서들은 일부 관계자들 외에는 출판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물질적 지원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사사표기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번역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알림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갖도록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번역 사업 담당자들은 현지 독자들이 번역서가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미국의 선전 목적을 의심하게 되어 그 효과가 감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이해된다.⁵⁾

이처럼 미국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미국 도서들을 번역 출판토록 하는 데는 분명히 선전을 위한 목적이 존재했다. 반하이젤(Barnhisel & Turner, 2010; Barnhisel, 2015)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정부의 번역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국가 간의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보다 이상주의적인 목적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곧 냉전이 심화되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기여라는 실용주의적인 목적이 고려되었다

5) 한국에서는 예외적으로 미국정부의 지원 사실을 밝힌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장기봉이 번역한 핫튼(Graham Hutton)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유문화사, 1958)의 '역자의 말'에서, "원출판사인 뉴욕시의 맥미란사로부터 신속하게 출판권을 얻어준 주한 미대사관의 문화관 하이드라씨, 그리고 광문화관의 힘이 없었 던들 아마 이 책은 발간되지 못하였을 것이다"(4쪽)라고 하여 지원에 대한 사례를 표한 바 있다. 신태환이 번역한 <벤저민 프랭클린>(수도문화사, 1953)의 역자 머리말에서도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청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밖에 <난중일기초>(수도문화사, 1953)라는 현지 한국인 저작물 외에는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대부분의 도서들은 미국 대외공보국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어떠한 사사표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재 미공보원이 번역을 위해 선정하는 도서들은 본부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것들은 “미국정부의 목적이나 정책을 설명해주거나, 미국 사람들의 문화적 성취나 정신적 전통을 비롯하여 그들의 생활과 문화의 중요한 측면들을 제시하거나, 자유세계의 생활방식을 고취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교리나 체제를 비판하거나, 다른 나라 인민들의 문화적 유산이나 정당한 소망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주거나, 유용한 과학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서들이어야 했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미공보원이 현지 출판업자들에게 번역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배부하는 도서목록에는 “가치 있는 미국의 소설이나, 공산주의 교리를 비판하는 책이나, 현대 미국 사회의 중요한 면들을 다루는 책이나, 잘 알려진 미국인의 전기나, 전형적인 미국의 고전이나, 미국의 발전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지녔던 본질적인 중요성을 예시해주는 미국 역사서” 등이 포함되어야 했다.⁷⁾ 다시 말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이해나 지지를 유도하고, 미국의 역사나 정치사회 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미국의 토착적인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 미국이 문화적으로 천박하다는 편견을 교정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으로 소련과 공산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비합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번역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던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초에 매카시즘이 위세를 떨치면서, 도서 번역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아 도서 선정 기준이 훨씬 강화되었다.⁸⁾ 초기에 저자의 정치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도서의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하면 번역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다소 느슨한 기준에서, 저자의 정치적 성향을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좌익 성향의 정치활동을 했거나 단순히 그것에 동정적이었던 일부 작가나 학자의 저작들이 원천적으로 번역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모순이나 도덕적 타락상을 부각시키는 저작들도 미국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배제되었다(Barnhisel, 2015).

6) USIA, 1957, Book Translation Handbook, p. 4.

7)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51. Launching Books in Foreign Countries, p. 5; USIA, 1957, Book Translation Handbook, p. 5.

8)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53, Report on the Book and Library Program, RG 306, Historical Collection Subject Files, 1953~2000, Box 182, pp. 27~56.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은 다른 도서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유럽 국가들에 중점을 두었으나, 곧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초점을 옮겼고, 1960년대에는 중남미로 확대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홍콩 다음으로 미국이 도서번역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허은, 2013, 590쪽).

3.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1) 미군정 종료 이후 한국전쟁 휴전까지

한국에서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은 왜소한 규모에서나마 미군정 하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국무성이 육군성으로부터 한국의 대민 관계 업무를 이양 받은 1949년 7월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53년에 대외공보국(USIA)이 설립될 때까지는 국무성의 국제공보국(International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소속된 도서관사업과(Division of Libraries and Institutes)가 도서번역 사업을 주관했다. 먼저 미육군성의 대민사업과(CAD)가 인수인계를 위해 주한 미공보원에 미군정의 도서번역 사업 실적 보고를 요청한 바 있지만,⁹⁾ 국무성도 독자적으로 미공보원을 통해 저작권 지정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시행해나갈 도서번역 사업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¹⁰⁾

이뿐만 아니라 1950년 초에 국무성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1948년 8월 15일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외국 도서의 목록 작성과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한 조치와 예상되는 효과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관계자는 한국에서 대규모 도서번역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우선적으로 인쇄용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¹¹⁾ 그리고 미국 도서의 번역이 효과적인 분야로 의학, 공학 등의 이공 분

9) Letter from Michael Weyl, Chief, Libraries and Book Rights Section, CAD to USIS, American Mission in Korea, June 6, 1949; Letter from Walter H. Drew, Editor, USIS, Korea to Michael Weyl, Chief, Libraries and Book Rights Section, NYFO, Reorientation Branch, CAD, October 16, 1949, RG 306, USIA, Information Center Service/Publications Division/Translation Branch, Subject Files: 1946-1963(이하 Entry P 52로 표기), Container 4. 현지 담당자는 골트(Tom Galt)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How the United Nations Works)>,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Animal Farm)>, 그리고 두 권으로 출판된 크라브첸코(Victor A. Kravchenko)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I Chose Freedom)> 등 3종이 출판되었다고 보고했다.

10) Despatch No. 755 from American Embassy, Korea to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1, 1949, Subject: Copyright Assignment, RG 59, Decimal File 1945~49, Box 4726.

야,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문학 분야 등을 제시하고, 현지 출판업자에 가장 유용한 지원으로는 저작료를 면제한 저작권 지정과 용지의 제공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자금 제공이나 일정한 부수의 구입 보장 같은 재정적 지원은 별로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 미국 도서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정치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용지 문제만 해결해주면 한국의 출판업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례로 1948년과 1949년에 걸쳐 미군사령부의 대민공보국(Office of Information)이 주도하여 두 권으로 역간했던 크라브첸코의 저작은 1만부 이상 팔려나가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이중연, 2005).

다른 한편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은 1948년 1월 1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출판된 39종의 한국어판 외서 목록을 작성해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일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서 출판된 소수의 외서 번역물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미국 도서의 번역물이었다.¹²⁾ 이 목록에 제시된 도서들 가운데, 미공보원이 사실상 직접 출판했던 3종의 도서 외에는 전부가 해적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국 출판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앞서 제안한 것과는 달리, “최선의 조치는 대사관이 지방의 미국 도서실이나 지부 사무실에 비치할 용도로 일정한 부수의 신간 서적을 구매해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1950년에 국무성이 한국에서 도서번역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초기에는 한국의 현지 출판업자만이 아니라 미국의 출판업자와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의 출판업계가 너무 열악해 많은 책을 단기간에 역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무성 관계자들이 분단된 상태로 신생 정부가 출범한 한국에서 도서번역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0년 3월에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Constitution of the U.S.*와 *Infant Care* 등 미국정부가 간행한 2종의 팸플릿을 한국에서 역간하려는 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무성이 추가로 *Manual for Teaching Midwives* 등 7종의 미국정부 간행물을 미국에서 한국어로 역간해줄 것을 요청했다.¹³⁾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11) Despatch from Everett F. Drumright, Charge d'Affaires ad interi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25, 1950, RG 59, Decimal File 1950~54, Box 2539.

12) Despatch from Everett F. Drumright, Charge d'Affaires ad interi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Subject: Korean Language Editions of U.S. and Other Foreign Books, April 19, 1950, RG 59, Decimal File 1950~54, Box 2539.

정부 수립 초기였던 한국의 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국무성의 도서관과도 독자적으로 돌레르 부부(Ingri d'Aulaire & Edgar Parin d'Aulaire)의 *Abraham Lincoln*과 *George Washington*, 펜턴 부부(Carroll Lane Fenton & Mildred Adams Fenton)의 *The Land We Live on*, 올즈(Elizabeth Olds)의 *Riding the Rails*, 크리들(Ellis Credele)의 *Johny and his Mule* 등 5종의 일반 도서를 미국에서 한국어로 역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¹⁴⁾ 그리고 국무성은 1950년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미국에서 한국어 번역 사업을 진행하여,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와 페리스(Helen Ferris)의 *Partners: The United Nations and Youth*,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Your America* 시리즈 6권, 베넷(Stephen Vincent Benet)의 〈아메리카 민주주의 성장사〉(*America*) 등 UN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룬 도서들의 번역에 착수했다.¹⁵⁾ 물론 국무성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필요한 인쇄 부수 등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작업을 진행했다.¹⁶⁾

1950년 전반기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번역 출판을 추진했던 2종의 미국정부 간행물은 그해 4월까지 제작이 완료되어 국무성에 15부씩 납본이 이루어졌고, 같은 시기에 국무성이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제작을 진행했던 번역 도서들도 이듬해 초에 출판되어 한국어로 송달되었다고 한다.¹⁷⁾ 하지만 같은 해 하반기에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국무성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추가로 미국에서 진

13) Despatch from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1, 1950, 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Publications Division/Translation Branch, Country and Subject Files: 1945~1957(이하 Entry P 50으로 표기), Container 11. 모든 번역 도서의 한국어 제목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등 한국의 주요 도서관의 소장 목록에서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영어 제목으로 표기했음.

14) Office memorandum from A. Vogel, ILL, DOS to Russel L. Riley, ILL, DOS, March 6, 1950,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15) Office memorandum from Joan Birkeland, ILL, DOD to Margaret Conlan, ILL, DOS November 13, 1950; Office memorandum from Philip G. Hodge, ILL to Robert A. Conrads, TC, November 29, 1950,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베넷의 책은 오천석 번역으로 국제문화공회가 1947년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국무성은 한국에서 이 책이 이미 역간된 것도 모르고 작업을 진행한 셈이다.

16)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Seoul, November 16, 1950;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1, 1950,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17)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7, 1950 & April 11, 1950;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January 17, 1951,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하지만 이 때 제작된 도서들이 한국전쟁 중에 배포되었기 때문인지, 어느 것도 한국의 주요 도서관 소장 목록에서 찾을 수 없었다.

행 중이었던 도서번역 사업은 잠시 중지되는 등 지체되다가,¹⁸⁾ 아래에서 상술하듯이, 1952년 4월에 주한 미국대사관의 제안에 따라 번역 원고나 교정쇄를 한국으로 보내 인쇄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¹⁹⁾

사실 미국에서의 한국어 역간은 1950년대 초에만 잠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미국에서 역간 작업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었으며,²⁰⁾ 둘째로 번역 도서가 미국에서 제작되어 배포될 경우 한국의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국무성도 1950년 11월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발송한 비망록에서 “번역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²¹⁾ 여기서 국무성 관계자가 시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것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한국을 극동지역 냉전의 교두보로 지켜내기로 한 이상, 한국을 미국의 문화적·이념적 영향권에 긴밀하게 포섭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서번역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초기에 국무성이 미국에서 미국 도서의 한국어 역간을 진행하면서도, 한국에서 도서번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1951년 12월에 국무성은 한국에서 전장 도서의 출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한 두 달 간격으로 대사관에 축약판이나 길이가 짧은 도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²²⁾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서 준비한 번역 원고를 마닐라나 런던, 혹은 다른 곳에서 인쇄해도 무방하고, 현지 출판이 가능하다면 한국어 번역본을 대량으로

18) Office memorandum from Philip Hodge, III, DOS to Robert Conrads, TC, DOS, January 27, 1951,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19)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18, 1952;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June 19, 1952 & October 9, 1952,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20) 국무성 도서관사업과 직원인 Vogel은 “미국에서 한국어 조판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본문이 6천 단어가 넘는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Office memorandum from Vogel to Riley, op cit.

21)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Seoul, November 16, 1950,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22) Airgram 140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December 28, 1951, 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Publications Division/Translation Branch, East Asia and Pacific Country Files: 1948~1960(이하 Entry P 61으로 표기), Container 7.

구입해서 무료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덧붙여 축약판을 신문의 부록으로 출판하거나 연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축약판이나 분량이 적은 도서들이 한국에서 신속하게 출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목록을 전달하기 전에 국무성이 저작권을 미리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1950년 9·28수복 직후에 국무성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한 행위에 관한 팸플릿을 만들어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배포할 목적으로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함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을 수집해줄 것을 요청했다.²³⁾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 관리들과 민간인들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해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한 서울에서 시민들이 겪었던 경험담을 기술한 원고들을 수집해서 영역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²⁴⁾ 이렇게 영역된 원고들은 1951년에 라일리(John W. Riley)와 슈람(Wilbur L. Schramm)이 편집하여 *The Reds Take a City*라는 제목으로 럽거스대학 출판부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원고들은 1950년 말에 수도문화사와 을유문화사에 의해 각각 유진오 외, <그날의 90일>과 채대식 외,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²⁵⁾ 국무성은 한국에서 이것을 최대한 신속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²⁶⁾

이어서 1952년 4월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공보원(USIE)의 도서번역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상의 변화가 있다고 국무성에 보고했다.²⁷⁾ 첫째로 주한 유

23)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Forces, October 6, 1950, 511.95/10-650 국회도서관 마이크로필름 MF007847.

24)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0, 1950, 511.95/11-1050, 국회도서관 마이크로필름 MF007847.

25) 을유문화사와 수도문화사는 주한 미공보원이 1957년 4월에 본부에 송부한 “한국 출판계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주요 출판업자 명단의 최상위에 나란히 올라 있었다. 주한 미공보원은 을유문화사가 “가장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안정된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미공보원과 을유문화사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을유문화사가 미공보원 도서의 1/4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수도문화사도 “믿을만하고 인정받는 회사”라고 하면서, “미공보원과 긴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미공보원 지원으로 다수의 도서를 출판한다”고 언급했다. Despatch 58 from USIS, Korea to USIA, April 30, 1957, Subject: A Survey of Publishing in Korea, Enclosure I, Book Publishers,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p. 1.

26)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December 14, 1951,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장영민(2011)이 주장하듯이, 이 책들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58년까지 미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역간된 도서 목록에는 이 책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밝힌 어떤 공식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USIA(1958), *Books Published Abroad*, RG 306, Records Relating to the Book Program, 1966~1999, Box 2.

27)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18, 1952,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엔민사처(UNCACK)가 최근 공보교육 부문에서 기술 관련 도서의 역간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공보원이 증시했던 기술 분야 자료들의 사업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실 주한 미공보원은 이후에 기술 분야 도서를 유엔민사처에 일임하고, 비기술 분야 도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무료로 도서를 배포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현지 출판업자에게 위탁해 도서를 제작,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무성이 미국에서 역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도서들에 대해서도 아직 인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번역 원고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의 출판업자들이 출판토록 하고, 현지 거래망을 통해 배포, 판매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러한 제안에 국무성의 도서번역 프로그램 담당 부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무성의 도서관사업과는 앞에서 보았듯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청과 내부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추진했던 역간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사업과는 번역과(Translation Section)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Work with Safety*처럼 이미 번역본의 인쇄가 종료된 것과 미국 출판사의 삽화 원본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국에서 인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Your America* 시리즈 6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들의 번역 원고나 교정쇄를 한국으로 송부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했다.²⁸⁾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에서 주한 미공보원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한 미공보원은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의 출판업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서번역 사업 담당자들은 사적인 만남이나 도서연회(Book Party)²⁹⁾와 같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한국 출판업자들에게 미국 도서들을 소개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료와 용지 제공, 출간된 번역서의

28) Operations memorandum from Philip Hodge, ICS, DOS to Conrads, TC, DOS May 20, 1952;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May 19, 1952;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October 9, 1952,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29)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952년 3월에 국무성에 발송한 공문에서 케리(Frank Kelly)의 *Macarthur: Man of Action*의 번역본 〈영웅 매카더 장군전〉(최재서역, 일성당서점, 1952)이 출판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주한 미공보원이 도서연회(Book Party)에서 이 책의 원서를 출판업자에게 증정한 바 있으며, 원래 이러한 연회는 국무성이 추천한 도서를 소개하고 그것의 번역 출판을 권장하기 위해 미공보원이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25, 1952,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대량 구입 등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역간을 권유했던 것이다.

2) 한국전쟁 휴전부터 1950년대 말까지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에 미국정부는 냉전의 최전선에 놓인 한국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교육이나 언론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발전과 친미세력의 신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도서번역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주한 미공보원은 1953년 말에 도서번역 사업 전반을 검토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번역의 질을 제고하고 도서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였다.³⁰⁾ 먼저 번역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들이 번역 원고에 대한 편집을 충실히 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계약을 할 때 번역 원고를 미공보원에 먼저 제출토록 하여, 담당자가 한국인 직원의 도움을 얻어 원고를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나아가, 미공보원은 도서 번역이 매우 집중적인 작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종종 학생들에게 번역을 떠맡기는 저명 교수나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 전업 번역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물론 번역의 질 제고를 위한 이 같은 처방들이 모두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미공보원의 사업 진행을 맡은 직원이 번역 원고를 먼저 검토한 후에 출판사에 넘기게 되긴 했지만, 번역자는 여전히 저명한 작가나 학자, 혹은 명사들로 선정했는데, 이에 대해 미공보원은 지원을 통해 간행된 번역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³¹⁾

이 밖에도, 미공보원은 한국 출판시장이 한국전쟁 종료 직후의 혼란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출판업자들이 판매 대금 환수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미공보원은 출판업자를 위해 유통 구조의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도서 번역 출판을 맡은 출판업자들을 대신해 해당 번역서를 위한 신문광고를 내주거나 때로는 문화원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해 책들을 지방 도시로 운송해주기도 했다.³²⁾

30)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December 30,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31) Despatch from USIS, Korea to USIA, March 25, 1957,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32) 주한 미공보원은 1953년 9월에 본부에 보낸 전신에서 “도서 번역 사업에 의해 출판된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한국의 신문 지면을 구매하거나 포스터를 인쇄하려는 계획에 대해 본부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광고는 미공보원을 언급하지 않고 출판사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elegram from USIS, Pusan to USIA, September 16, 1953. RG 306, Entry P 50, Box 11.

한편 미국교육위원단(American Education Mission in Korea)의 1954년도 한국 도서 번역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방 이후 한국은 그동안 일본어 번역본으로 접할 수 있었던 서구 문헌에 대한 통로가 폐쇄되어 서구 문화의 수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53년에 문교부가 도서번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을 받아 차후 5년간 매년 백 종씩 총 5백 종의 서구 도서를 역간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후 복구에 따른 재정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1954년 5월까지 12종만 출판을 완료했다고 한다.³³⁾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에는 겨우 355종의 서구 도서들이 역간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것들조차 대부분 전쟁 중에 절판되는 등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³⁴⁾ 이에 따라 미국교육위원단은 한국에 서구 도서의 번역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단은 번역자들의 보수가 너무 낮아 양질의 번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 때문인지 1950년대 전반기에 비해 1950년대 후반에는 미공보원이 용지 지원 외에 출판된 번역서의 구입을 통한 자금 지원은 대폭 줄였지만, 번역료 지원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한 미공보원은 역간을 맡은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공보국을 통해 저작권을 확보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지를 제공하고, 번역료를 일부 혹은 전부 지원했으며, 출판된 번역서를 대량 구입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종료 직후까지는 지원을 받아 출간된 부수의 1/3 혹은 절반, 심지어 전부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⁵⁾ 그러다가 1950

33) American Education Mission in Korea, 1954, Report on Translation of Western Literature in Korean,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동아일보(1956. 1. 22) 기사에서도 2년 동안 문교부의 번역 사업으로 출간된 도서가 8종에 불과하다고 밝혀 이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교부(1958)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172권을 선정하여 그중 133권을 번역 완료”했지만, 이 학술 전문 도서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율이 극히 부진했기 때문에, 번역이 완료된 원고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출판된 것은 46종에 불과하고, 심지어 발행인으로 지정된 출판사가 국고 보조를 받아 조판을 해놓고 출판하지 않은 것도 41종에 달한다고 밝혔다(457~459쪽).

34) 미국교육위원단이 조사를 통해 밝힌 서구 도서 번역본의 범주별 목록(총 355종)은 교육 28종; 심리학 5종; 철학 15종; 종교 16종; 역사 8종; 사회학 6종; 경제학 18종; 정치학 및 법학 57종; 미술 및 음악 5종; 언어 5종; 문학(일반 담론) 19종; 문학(시) 11종; 문학(희곡) 7종; 문학(소설) 23종; 문학(전기) 9종; 문학(기타) 8종; 수학 10종; 화학 및 물리학 등 14종; 공학 8종; 의학, 약학, 농학, 지질학, 생물학 12종 등이었다. 이처럼 문학이 총 58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학과 법학이 57종, 교육이 28종이었으며, 화학 및 물리학은 14종, 공학 8종 등 이공 계통의 도서들은 총 44종에 불과했다.

35) 주한 미공보원은 머셀(James L. Mursell)의 *Education for American Democracy*를 합동통신사 외신부가 번역한 〈민주교육의 노선〉(수도문화사, 1953)의 초판 1천 부를 전부 구매했고, 크로스만(Richard Crossman)의 *The God That Failed*를 을유문화사편집부역으로 출간한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을유문화사, 1952)의 초판 3천 부 중 1천5백 부를 구입했으며, 스카트(Andrew M. Scott)의 *Anatomy of Communism*을 정태섭이 번역한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사상계사, 1953)의 초판 3천 부 가운데 1천 부를 매입했다. Operations

년대 후반에 한국의 출판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번역서의 구매를 통한 지원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57년 3월에 주한 미공보원은 대외공보국에 “통상 초판 발행부수의 10% 이하의 책자를 구매하지만, 지원 규모는 도서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⁶⁾ 늦어도 1958년부터는 출간된 번역서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용지 제공과 번역료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일정한 부수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공보원은 지원을 받은 번역서가 출간되면 반드시 10부를 대외공보국에 송부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출판일자, 출판사, 발행부수, 인수 부수, 지원 내역, 소매가격, 그리고 사사표기 여부 등을 기록한 송장을 첨부토록 되어 있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 파일에서 송장이 확인되는 것은 1958년 2월부터이고, 그전까지는 단순히 출간된 번역서 10부를 송부한다는 내용의 공문만 발송했다.³⁷⁾ 이런 송장에 의하면, 1958년 이후에는 출간된 번역서를 구매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처럼 보인다.³⁸⁾ 그리고 1959년 초까지는 미공보원이 용지나 번역료를 지원해준 출판사로부터 발행부수가 3천부든 5천부든 간에 대개 100부를 인수하다가, 1959년 5월부터는 발행부수와 상관없이 2백부씩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⁹⁾

주한 미공보원은 구매나 인수를 통해 확보한 번역서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다. 지방 소재의 미문화원이나 현지 문화원에 배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⁴⁰⁾ 일부는 해외, 특히 일본의 도쿄와 교토 주재 미공보원에 송부해 그 인근 지역에 거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March 16, 1954, Enclosure: Book Translation Program,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36) Despatch from USIS, Korea to USIA, “Interim Assessment for USIS Korea Program,” March 25, 1957,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37) 확인된 최초의 송장은 마이여(Alfred G Meyer)의 *Marxism: Th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를 양호민이 번역한 〈맑스주의론〉(을유문화사, 1958)에 대한 것이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February 28, 1958,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38) 주한 미공보원이 1958년 4월에 대외공보국에 윈(William E. Warne)의 *Mission for Peace*를 손기영이 번역한 〈사막의 양지: 대 이란 기술원조의 경우〉(수도문화사, 1958) 10부를 발송하면서 첨부한 송장에는 발행부수 3천부 가운데 7백부를 구입했다고 보고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April 29, 1958,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39) 주한 미공보원이 1959년 11월에 대외공보국에 발송한 공문에는 그해 3월부터 지원 받은 번역서를 2백부씩 인수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송장에는 4월까지도 1백부만 인수했고 5월부터 2백부씩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November 10, 1959;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April 3, 1959;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May 5, 1959,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40) 예컨대 1956년에 주한 미공보원은 스미스(Louis Smith)의 *American Democracy and Military Power*의

주하는 한국 유학생들과 교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일본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했다.⁴¹⁾ 하지만 주한 미공보원이 인수한 번역서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1955년도 주한 미공보원 감사보고서는 “도서번역 사업의 부산물이 한국어로 번역된 미국 도서를 선물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부 영어 서적들과 미국 잡지나 신문 구독으로 보완된다”고 했다.⁴²⁾ 미공보원의 모든 직원들은 “대개 상위 지식층에 속한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을 접촉 하면서 도서 증정 활동에 참여”했고, 미국대사관의 간부들은 종종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도서를 선물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에 주한 미공보원은 도서번역 사업으로 출판된 22종의 책으로 구성된 ‘행복문고’(Happy Books) 200권을 한국의 교육자, 정치지도자, 군부대에 증정한 사실을 보고했고, 11월에는 특히 각급 군부대에 위의 ‘행복문고’와 미국 육군 도서관 폐쇄 시에 확보한 영문 도서들을 합쳐서 수백 권씩 배포한 일로 인해 한국의 영자신문인 *Korea Republic*에 호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⁴³⁾ 1961년도 주한 미공보원 감사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서 사업에 의해 도서를 증정 받은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기관들을 열거했는데, 정부관리·사업가·군 지휘관·지역사회 지도자·교육자·언론인·작가·편집인 및 발행인·미국정부 초청 방미 인사·대학생 지도자 등의 개인들과 정부 기관·군 조직·대학 도서관·공공도서관·고등학교 등의 기구

번역본인 서석순역, 〈민주주의와 군사력〉(박문출판사, 1955)을 1천부 구입해서 지방의 미문화원과 현지 문화원에 배부하고 증정했다고 대외공보국에 보고하였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April 23, 1956,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41)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S, March 8, 1955, Subject: Semi-Annual USIS Report, July 1-December 31, 1954, RG 469,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Subject Files, 1953~59, Box 36, pp. 6~7.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는 주로 교토 주재 미공보원에만 한국어 번역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58~1960년에 주한 미공보원이 대외공보국에 발송한 모든 송장에는 한국어 번역서를 배부해준 해외 공관란에 아예 교토 주재 미공보원(예컨대 Distribution to other posts: __copies to USIS-Kyoto, Japan)이 인쇄되어 있었고, 배부부수는 각 도서마다 달라서 대부분 5부 혹은 10부였지만, 때로는 전혀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교토 주재 미공보원에 집중적으로 한국어 번역서를 배부한 이유를 공식 문서에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오사카를 포함한 교토 인근 지역에 재일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Inspection Report of USIS Korea, June 21-July 1, 1955, by William L. Grenoble & James B. Opsata, Inspectors to USIA, September 21, 1955, RG 306, Inspection Reports and Related Records, 1954~62, Box 6, p. 20.

43)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October 14, 1955;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November 8, 1955,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군부대와 지휘관들에 대한 도서 배포를 위해 주한미군군사고문단(KMAG: Korea Military Assistance Group)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Korea to USIA, October 27, 1955,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들로 매우 광범했다.⁴⁴⁾

한편 주한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은 단행본의 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신문이나 잡지의 연재물도 채널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간 〈사상계〉를 들 수 있는데, 〈사상계〉는 창간 때부터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⁴⁵⁾ 1955년 1월부터 초대 편집주간을 맡았던 김성한(1963)에 의하면, 국내 원고의 부족을 번역물로 메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번역물 가운데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1954년 초에 주한 미공보원은 무어(Barrington Moore, Jr.)의 〈현대쏘련정치론: 권력의 병리〉(*Soviet Politics: The Dilemma of Power*)를 〈사상계〉에 번역 연재한 후에, 다시 도서 5천부를 발간할 계획을 보고하고, 대외공보국의 도움으로 저작권을 확보해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⁴⁶⁾ 이후에도 1958년에 화이트(Lynn White, Jr.)의 *Frontiers of Knowledge in the Study of Man*을 ‘지식의 전선’이란 제목으로 2월호부터 7월호까지 6회, 그 뒤를 이어 헤이즈(Bartlett Hayes, Jr.)의 *The Naked Truth and Personal Vision*을 원저자도 밝히지 않은 채 사상계편집부의 이름으로 ‘미국 현대미술론’이라는 제목을 붙여 같은 해 6월호부터 10월호까지 5회 연재했다.⁴⁷⁾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부흥되면서, 한국 출판 산업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공보원은 1960년 초에 본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1950년대 말까지 아직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영세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감당할 만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출판사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⁴⁸⁾ 출판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1958~59년에 6권으로 출판된 〈대백과사전〉(학원사) 3만 질이 판매되었

44) Inspection Report of USIS Korea, October 25-November 24, 1961, by James L. Meader & Donald E. Wilson, Inspectors to USIA, November 24, 1961, RG 306, Inspection Reports and Related Records, 1954~62, Box 6, p. 56.

45)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October 19, 1955, Subject: USIS Assistance to Korean Periodicals,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공보원이 〈사상계〉 창간 초기 7회의 발행을 위해 용지를 제공했다고 한다. 한편 월간 〈사상계〉는 장준하에 의해 1953년 4월에 부산에서 창간되었고, 7회 발간 후 11월부터는 서울로 옮겨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덕교 (2004), 498~499쪽 참조.

46) Telegraph from USIS, Seoul to USIA, February 16, 1954; Wirom from USIA to AmEmbassy, Seoul, April 26, 1954,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이 책은 강봉식의 번역으로 〈사상계〉 1954년 8·9·10·11·12월호와 1955년 1·4월호에 7회 연재된 후, 같은 해에 별도의 도서로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7)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November 6, 1958;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14, 1959,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이 두 가지 연재물은 앞의 것과 달리 별도의 도서로 출판되지 않았다.

48)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27, 1960, RG 306, Entry P 61, Container 8, p. 1.

고, 1958년에 출판된 〈표준국어사전〉(을유문화사)도 2만부 가량 팔렸으며, 양장본으로 신문용지보다 양질의 종이에 인쇄된 3종의 세계문학전집(정음사, 동아출판사, 을유문화사)도 지난 2년 동안 성공적으로 판매되었다고 밝혔다.⁴⁹⁾ 따라서 출판 시장에서의 경쟁도가 격 차원에서 제작기술 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추어 미공보원은 한국의 출판사들에 번역 도서의 주제 선정만이 아니라 도서의 질 면에서도 개선을 권유하고, 그동안 번역 도서 출판을 위해 지원해왔던 신문용지의 재고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앞으로는 백상지 같은 양질의 용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나아가 미공보원은 차후 한국의 출판사들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설득할 계획임을 밝혔다.

위의 공문에서, 미공보원은 1951년 이후 9년간 도서번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출판업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총 226종의 번역서와 13종의 한국인 집필 도서를 간행토록 했으며, 주요 신문이나 잡지에 8종의 미국 도서를 연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59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출판된 1600여 종의 도서들 가운데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은 것은 대략 2% 정도라고 추산했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헨더슨(1959)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도서번역 사업의 규모는 미국 대외공보국의 전체 도서번역 프로그램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은(2013)도 미국 대외공보국의 해외 출판물 통계를 바탕으로, 1950~60년대에 한국은 일본, 홍콩 등과 함께 미국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서번역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했다(586~588쪽).

4.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 번역사업의 목적과 내용

1)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

이처럼 미국정부가 한국에서 도서번역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냉전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지닌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

49) 박지영(2010)에 의하면, 정음사는 1958년 1월부터 시작해 여러 해에 걸쳐 총 50권의 전집을 기획 출판했고, 동아출판사는 1958년 11월부터 시작해 총 18권의 전집을 간행했으며, 을유문화사는 1959년 8월부터 시작해서 총 60권의 전집을 간행했다고 한다(495~496쪽).

50)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27, 1960, p. 4. 1950년대 중후반까지는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을 통해 출판된 번역서들이 한국의 전체 출판 도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3% 정도였는데, 한국의 출판업계가 성장하면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미국정부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출범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후의 재건 과정에서도 매우 치밀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azinsky, 2007). 앞에서 언급했듯이, 냉전기에 미국정부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방대한 경제원조나 거대한 군사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허은(2013)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했는데, “중에서도 도서는 미국의 신념과 미국의 진실을 알리며 지적·도덕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자 최고의 도구로 간주되었다”고 한다(561쪽).

대체로 냉전기 미국정부의 다양한 도서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조성하고 미국의 제도나 가치를 전파하려는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도서 프로그램도 미국정부가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일반적인 목표, 즉 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미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등의 목표를 추구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정부가 시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당시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역간된 도서의 주제를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여러 목적들 가운데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추이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주한 미공보원의 1954년 3월 8일자 도서번역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표에는 1952년부터 53년까지 도서번역 사업으로 출판된 모든 도서들과 54년 초 현재 출판이 진행 중인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 32종의 도서들 가운데 반공주의를 주제로 다룬 도서들은 10종이고, 민주주의를 다룬 것은 4종, 국제정치는 2종, 미국문학은 5종, 나머지 11종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다룬 것들이었다.⁵¹⁾ 이처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산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목적을 가진 도서들이었으며, 뒤를 이어 미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도서들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도서들 순이었다.

51)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March 11, 1954, Enclosure: Book Translations Program,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여기서 1952년에 출판된 모든 도서들은 미공보원의 1951년도 도서번역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1956년 11월 초에 본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주한 미공보원은 195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서번역 사업을 통해 출판된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해 정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출판된 총 46종의 번역 도서 가운데 6종은 반공주의, 4종은 민주주의, 8종은 미국문학, 나머지 28종은 미국의 생활양식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⁵²⁾ 이처럼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의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려는 목적보다는 미국의 문화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59년 7월에 주한 미공보원이 4개월간의 도서번역 사업 통계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면서, 1959회계연도에 역간될 31종의 도서 주제를 분류한 자료를 첨부했는데, 여기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것이 11종,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다룬 것이 4종, 반공주의를 다룬 것이 5종, 미국사회와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다룬 것이 22종이었다(일부 중복).⁵³⁾ 이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는 주한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에서 공산주의 이론이나 체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덜 강조된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려는 목적은 조금 더 강조되었고, 미국사회와 미국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에서 추구했던 목적들의 전체적인 구성은 사실상 거의 동일했지만 각 목적의 비중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미국정부가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한국에 반공주의가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도서번역 사업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경감시키는 대신 한국의 독자 집단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국사회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주한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보려고 한다.

2) 미국의 이미지와 번역 도서의 선정

앞에서 보았듯이, 특정 도서가 주한 미공보원의 번역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자나 내용이 이념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어야 했고, 나아가 그 도서의 역간이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미공보원이 설정한 공보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2)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November 2, 1956,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53)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July 15, 1959, RG 306, P 61, Container 7.

한국의 열악한 출판 환경 속에서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했지만, 특히 문학 분야에서는 미국의 이미지와 관련해 국무성이나 대외공보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매우 치밀한 검토-가치 검열이라고 부를 만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53년 10월에 주한 미공보원이 서울대 영문학과와의 협조를 얻어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몇 종의 다른 도서들과 함께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를 고려중이라고 보고했을 때, 대외공보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이 미국 부유층의 사치나 방탕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의 비평을 첨부해 회신했다.⁵⁴⁾ 따라서 〈위대한 개츠비〉는 미공보원의 번역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한국의 독자들은 추후 한국의 출판업계가 독자적으로 이 소설의 번역서를 출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⁵⁵⁾

또한 1954년 8월에 주한 미공보원이 광주의 미국문학 클럽이 한국어로 번역 작업 중인 단편소설 13편에 대한 저자 승인과 저작권 확보를 요청했을 때도, 두 편만 승인하고, 한편은 아직 미검토 상태라 유보하며, 나머지 10편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감미롭고 밝은’ 작품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지만,⁵⁶⁾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미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주는 소설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대외공보국의 공보원지원과(Information Center Service Section)가 이미 추천했던 단편소설선집 네 권에 포함된 것들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⁵⁷⁾

54)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Pusan to USIA, October 15, 1953;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A to USIS, Pusan, November 5,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55) 국내 주요 도서관의 소장 도서목록을 검색한 결과, 〈위대한 개츠비〉의 가장 빠른 국내 번역본은 을유문화사가 1969년에 양병탁의 번역으로 출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진숙(1997)은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한 양병탁이 “한국번역문학상을 받아 을유(문화사)판 〈세계문학전집〉의 성가를 드높였다”고 회고했다(183쪽). 참고로 한국번역문학상은 원래 을유문화사가 1957년에 ‘을유번역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는데, 2회부터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주관으로 변경되었고 명칭도 바뀌었다고 한다(정진숙, 1997, 152~153쪽). 주한 미공보원은 첫 해 수상자로 도서번역 사업 지원 대상이었던 가운젠코(Igor Gouzenko)의 〈거인〉(*The Fall of a Titan*, 을유문화사, 1957)을 번역한 강봉식이 선정되었다고 대외공보국에 보고했다. Despatch 25 from the USIS, Seoul to USIA, November 19, 1957,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56) ‘감미롭고 밝은’ 작품만 도서번역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954년 가을 주한 미공보원의 한국어 번역담당 직원 광소진이 국무성을 방문해, ‘감미롭고 밝은’ 작품만 도서번역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과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A to USIS, Seoul, November 25, 1954,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57)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August 2, 1954; Operations memorandum

1955년 초에는 주한 미공보원이 번역 사업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희곡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책으로 묶어 출판하고 싶다는 의사를 본부에 전달하면서, 공연을 위해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몇 편의 희곡들과 함께 새롭게 한국의 출판업자들과 번역자들이 관심을 보인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의 유리동물원(Glass Managerie) 등 9편의 희곡에 대한 저자와 내용의 승인 및 저작권 확보를 요청했다.⁵⁸⁾ 여기에 대해 대외공보국은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 외에 한 편만 승인하고, 밀러(Arthur Miller)의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Salesman)이 미국 서민들의 삶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등 대부분의 작품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안으로 대외공보국의 담당 부서가 이미 승인한 다른 희곡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⁵⁹⁾ 이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은 본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희곡들은 모두 배제하고 본부의 승인을 얻은 다른 것들로 새로운 출판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미국 희곡선집 1> (*American Plays, I*) 이 1956년 1월에 출판되었다.⁶⁰⁾

1956년에는 주한 미공보원이 한국의 한 출판사가 오헨리(O'Henry)의 일부 단편소설들을 선정해서 역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대외공보국의 승인과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외공보국은 오헨리의 유머가 한국어 번역으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이 선정된 그의 소설들이 미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적나라하면서도 부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버마의 미공보원이 오헨리 작품집 출판과 관련하여 유사한 요청을 했을 때 대외공보국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선별했던 작품들로 대체하도록 권유했는데, 이때에도 해당 출판사가 이러한 권

from USIA to USIS, Seoul, September 16, 1954,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대외공보국의 담당자는 주한 미공보원의 관계자에게 별도로 보낸 서신에서 “운영 비망록에서 거부 사유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경우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유를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That Evening Sun*은 주인 부부가 흑인 노예 여성을 거칠게 다루면서 그녀의 사정에 냉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킬리만자로의 눈(The Snows of Kilimanjaro)*은 아내의 복지를 강조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합의(사회주의적 지향)를 내포하는 등, 도서번역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Letter from M. Elizabeth McNaull, Translation Branch, ICS, USIA to Kenneth J. MacCormac, USIS, Seoul, September 17, 1954,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58)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February 8, 1955,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59) Airgram from USIA to USIS, Seoul, March 30, 1955,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60)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May 3, 1955,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유를 받아들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⁶¹⁾

그리고 1958년에는 심지어 대외공보국의 도서 사업을 위해 유럽, 남미,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대표작인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를 정음사가 세계문학전집에 포함시키고 싶어한다고 주한 미공보원이 보고했을 때도, 대외공보국의 담당부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⁶²⁾ 이유는 “주인공들이 미국인의 삶에 대한 교화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포크너의 두 편의 다른 작품 중 하나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음사는 대외공보국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미공보원도 “이 소설의 번역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분명 지식계급에 속할 것이고, 이들은 대부분 미국과 서구 문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 책을 읽는다고 미국 사회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좋은 작품을 통해 미국인의 삶에 대한 다른 면모를 제시하는 것을 미공보원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징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변호했고, 대외공보국은 결국 입장을 바꾸어 그 소설의 번역 출판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다.⁶³⁾

이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도서 선정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저작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식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차원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당시 한국인들의 의식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식층과 학생들이 번역서의 주 독자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이 미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룬 도서들을 가급적 배제하려 한 것은 가중적인 효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1)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3, 1956;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A to USIS, Seoul, January 30, 1956;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February 27, 1954,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62)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July 13, 1959;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A to USIS, Seoul, August 7, 1959,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대외공보국 도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포크너의 활동에 대해서는 Barnhisel(2013), pp. 211~213과 Barnhisel(2015), pp. 124~133 참조.

63)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September 1, 1959;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A to USIS, Seoul, September 22, 1959,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3) 한국인 저작물 출판 지원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을 통해 한국인 저자들이 집필한 저작물 출판에 대해서도 간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을 둘러싸고 주한 미공보원과 국무성의 도서번역 프로그램 담당자들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고, 때로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초의 사례로서, 1952년 7월에 주한 미공보원 담당자가 국무성에 몇 건의 독자적인 출판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했는데,⁶⁴⁾ 이 계획에는 탈북자인 김시성의 수기 〈시베리아 유형기〉(중앙문화사, 1953)와 공산주의의 오류를 비판한 여러 서구 사상가들의 논문을 양호민이 편집한 도서(제목 미정)⁶⁵⁾ 등 3종이 포함되었다. 이 도서들은 곧바로 국무성의 승인을 받아 이후 차질 없이 출판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⁶⁶⁾ 아마도 이 현지 저작물들은 모두 반공이나 반공 관련 주제를 다루어 주한 미공보원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좋다는 응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이밖에도 1953년에 수도문화사가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언론인 설의식의 번역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초〉를 1만 5000부나 출판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신간이 3,000부 정도 제작되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공보원 관계자는 “백두진 국무총리가 이 책의 서문에서 미공보원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미공보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여러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들도 브리

64) Telegram from Lightner, American Embass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July 6, 1952, RG 59, Decimal File 1950~1954, Box 2541;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2,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65) 이 도서는 1953년에 *Criticisms of Communism*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Pusan to USIA, August 18, 1953; Operations memorandum from ICS, USIA to USIS, Pusan, November 4,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혁명은 오다: 공산주의 비판의 제관점〉(중앙문화사, 1953)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음이 확인되었다.

66)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2,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하지만 김동성 등 11인의 원고를 모아 출판키로 계획했던 *Korea Looks Ahead*는 미공보원의 번역사업 결과 보고서나 대외공보국의 해외 출판 도서 목록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도서관의 소장목록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67) 국무성이 1951년에 해외 공관에 배포한 매뉴얼(*Launching Books in Foreign Countries*)에는 현지 저작물의 출판 지원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만, 1957년에 대외공보국이 해외 미공보원을 위해 제작한 핸드북(*Book Translation Handbook*)에서는 “미국과 그것의 역사, 제도, 이상 등을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저자, 특히 해당 국가의 시민에 의해 집필된 저작물”임을 인정하고, “...지부들이 주요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선전 활동의) 목적을 지지하는 도서의 집필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것을 권장”하였다(p. 7, 괄호 속의 내용은 저자가 추가함).

그스대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했다.⁶⁸⁾ 같은 해에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한 황탁의 수기 〈붉은 감방〉과 한국전쟁을 다룬 유치진의 희곡 〈나도 인간이 되련다〉 등 반공주의를 주제로 한 도서들도 추가로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진문사에 의해 출판되었다.⁶⁹⁾

국무성은 1953년 5월 중순에 현지에서 집필된 저작물도 국무성으로부터 내용 허가를 받고 저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번역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한 미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⁷⁰⁾ 하지만 국무성은 곧이어 주한 미국대사관이 승인을 요청한 5종의 학술적인 현지 저작물 출판을 위한 지원에 대해 처음에는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⁷¹⁾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한국 출판계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승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결국 국무성은 현지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⁷²⁾

주한 미국대사관과 공보원 관계자의 교신에 제시된 당시 한국 출판업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흥미롭다. 이에 따르

68)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Pusan to USIA, August 18, 1953, Entry P 50, Container 11. 앞에서 보았듯이, 국무성이나 대외공보국의 지침은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도서에는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난중일기초〉의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허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마도 미공보원이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국무성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외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69)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에 의하면, 주로 반공주의 주제의 도서들을 간행한 진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었던 미국의 민간단체인 자유아시아협회(Committee for Free Asia)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고 한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Pusan to USIA, Washington, November 20, 1953, RG 306, Entry P 50, Box 11. 한편 자유아시아협회는 1951년에 조직되어 국무성 및 CIA와의 긴밀한 협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및 민간 문화외교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54년에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으로 개칭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Blum, 1956; Leary, 2012).

70)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May 19,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71) Operations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June 19,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주한 미공보원이 지원 승인을 요청한 도서들의 제목은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on the Korean Language*, *Korean Folklore*, *Beliefs and Customs*, 〈한국의 고활자 개요〉(*Ancient Movable Types in Korea*, 〈미술·고고학 용어집〉(*Reference Book on Korean Archeology, Architecture and Ceramics*) 등이었다.

72) Telegram from Briggs, American Embassy, Pusan to Secretary of State, June 23, 1953; Despatch from John R. Higgins, Public Affairs Officer, USIS, Pusan to USIA, August 18, 1953; Telegram from ICS, USIA to USIS, Pusan, November 20,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이 5종 가운데 실제로 출판된 것은 김원용의 〈한국의 고활자 개요〉(을유문화사, 1954)와 김재원의 〈미술·고고학 용어집: 건축편〉(을유문화사, 1955) 2종뿐이었다.

면, 한국의 출판업계는 인쇄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출판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모리배들이 정부 관리들과 결탁해 수입 용지를 독점하고 상업적인 통속물만 제작했기 때문에, 정작 명망 있는 전문 출판업자들과 학자들이 학술 도서나 전문 도서들을 출판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⁷³⁾ 이러한 상황에서 미공보원은 당시 한국 출판업계로서는 거액인 2만 5천~3만 불의 예산과 다량의 인쇄용지를 보유한 사실상 거대 출판업자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출판업계와 학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미공보원이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미국의 선전 목적만을 고려해 도서번역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제 시기부터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지식인 집단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담당자의 이러한 진단과 경고가 설득력을 발휘해서인지 국무성은 입장을 바꾸어 이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에도 주한 미공보원은 반공주의를 주제로 한 3종의 현지 집필 도서 출판 계획을 보고하고 국무성에 승인을 요청했다.⁷⁴⁾ 공식 문서로는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3종의 도서가 모두 공산주의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 공보정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현지 저작물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던 대외공보국의 도서 번역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의해 쉽게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⁵⁾

1950년대 후반에도 정범모의 〈항변의 장: 교육개혁을 위한 수상〉(풍국학원출판부, 1956)⁷⁶⁾ 외에, 양호민의 〈공산주의의 이론과 역사〉(중앙문화사, 1956), 김기서의 〈어린이

73)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연세대 백낙준 총장이나 서울대 이상백 교수 등의 염려와 분노를 야기했다고 한다. Despatch from John R. Higgins to USIA, op. cit.

74) 이 도서들의 저자와 제목은 각각 평양민보 편집국장과 김일성대학 교수를 역임한 이동화의 *Communist Politics and Violence*, 노동신문 편집부장을 지낸 박용태의 *Propaganda in North Korea*, 역사 교수인 이명봉의 *We Lived in North Korea*이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March 16, 1954,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75) 하지만 대외공보국의 해외출판물 목록에서 확인된 것은 *We Lived in North Korea*뿐이고, 저자도 이명봉이 아니라 Jae-chon & Dal-soon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2종은 실제로는 출판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USIA, 1958, *Books Published Abroad*, RG 306, Records Relating to the Book Program, 1966~1999, Box 2.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도서목록에서 한재춘과 권달순의 공저로 〈죽림[임]의 동굴: 목사와 탄광부의 수기〉(고려출판사, 1954)가 확인되었는데, 미공보원이 이 책의 영어 제목을 'We Lived in North Korea'로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76) 미공보원은 1956년 3월에 정범모의 저서 발간을 위해 신문용지를 지원해주고 1만 부를 발간토록 할 계획을 보고했고, 대외공보국은 같은 해 5월에 이것을 승인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March 6, 1956; Despatch from USIA to USIS, Seoul, May 6, 1956.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를 위한 미국 여행기)(학문사, 1957), 유철의 <내가 본 미국>(대동당, 1958), 김준엽의 <중국공산당사>(사상계사, 1959) 등 4종의 한국인 집필 도서가 추가로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다고 한다.⁷⁷⁾

이처럼 1950년대에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3종의 한국인 저작물 가운데 <난중일기>, <한국의 고찰자 개요>, <미술·고고학 용어집>, <항변의 장: 교육개혁을 위한 수상> 등 4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내지 고발이거나 아니면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인사들의 여행기였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미국정부가 도서 프로그램을 통해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목적에 잘 부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어 번역본의 활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도서번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한국의 출판업계나 독자시장 상황 등을 세심하게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의 식민국이었던 일본에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으로 출판된 일본어 번역본도 활용했다. 초기에는 미국정부가 한국인들의 대일 감정을 고려해서인지 미국 도서의 일본어 번역본을 한국에 배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47년에 한 미국도서의 일본어판을 한국에 배포하자는 민간인의 제안에 대해, 전쟁성의 담당자는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⁷⁸⁾ 하지만 미국 도서번역 사업 관계자들은 분단과 전쟁으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한국에서 출판되는 소량의 도서로는 결코 한국인들의 독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⁷⁹⁾ 더구나 한국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일제하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어를 읽을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학계나 지식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⁸⁰⁾ 도서번역 사업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더욱 폭넓게 활용하려고 시도

77)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27, 1960, RG 306, Entry P 61, Container 8. 이때 출판된 4종의 도서의 저자와 제목은 USIA, 1958, 1959, *Books Published Abroad*, RG 306, Records Relating to the Book Program, 1966~1999, Box 2에서 일차로 확인했고,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도서 검색을 통해 재확인했다.

78) 이 도서의 저자와 제목은 알란(V. S. Allanne)의 *Fundamentals of Consumer Cooperation*이었다. Letter from Edgar Erskine Hume, Colonel, GSC, Chief, Reorientation Branch to Mr. Sutton, September 4, 1947, RG 306, Entry P 52, Container 3.

79) Report No. 192, Korea, May 31, 1951,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했다.

때로는 주한 미공보원 담당자들이 특정한 미국 도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판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국 독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어 번역본을 시험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1953년 8월에 주한 미공보원은 후디싱(Raja Hutheesing)의 〈모택동의 나라〉(*The Great Peace*)의 번역 출판 의사를 타진해온 국무성에 회신하면서, 일본에서 먼저 번역본이 출간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독자들 사이에 관심이 형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출판업자가 한국어판을 간행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⁸¹⁾ 실제로 1955년 1월에 주한 미공보원은 위의 후디싱의 저서와 스미스(Louis Smith)의 〈민주주의와 군사력〉(*American Democracy and Military Power*)의 한국어판 저작권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2월에 추가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미 도쿄 주재 미공보원을 통해 이 도서들의 일본어 번역본을 세 차례나 구입해 한국군 지도자, 교육자, 국회의원, 도서 출판업자 및 신문 발행인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이 도서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한국어판 출간을 위해 저작권 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⁸²⁾

심지어 주한 미공보원 관계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어 번역본을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대체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컨대 사회학, 문학, 역사 등의 분야에서

80)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May 6,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참조. 여기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보처의 입장을 인용하여 스톤(I. F. Stone)의 〈비사 한국전쟁〉(*Secret History of the Korean War*)의 한국어판이 한국에서 출판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본어 번역본이 출간되면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과 관련 자료들을 보내줄 것을 국무성에 요청했다. 실제로 이 책은 1988년에야 비로소 백외경의 번역으로 신학문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81)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Pusan to USIA, August 11,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82)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13, 1955;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February 11, 1955, RG 306, Entry P 50, Box 11. 앞의 책은 1955년에 이약손의 번역으로 중앙문화사가, 뒤의 책은 같은 해에 서석순의 번역으로 박문출판사가 각각 출간하였다. 한편 주한 미공보원의 1954년도 전반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최초의 일본어 번역서 활용 사례는 스미스의 〈민주주의와 군사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미공보원은 한국정부의 과민반응을 우려하면서도, “실험적으로 도쿄 미공보원으로부터...이 책을 1백부 남짓 인수하고 한국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군 장성들과 고급 장교들에게 배포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일본어 번역서들도 군 지휘관들과 지식인들에게 증정할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September 9, 1954, Subject: Semi-Annual USIS Report, January 1-June 30, 1954, RG 469,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Subject Files, 1953~59, Box 36, p. 14.

200쪽이 넘는 수준 높은 미국 도서의 일본어 번역본이 먼저 출간되었다면, 굳이 도서번역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어 번역본을 새로 출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⁸³⁾ 이렇게 부피가 큰 도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정작 출판된 후에는 극소수의 독자만이 그 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도쿄 주재 미공보원을 통해 일본어 번역본을 주문해 한국의 대학교수, 출판사, 도서관,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선물용으로 배포하는 것이 한국에서 시행하는 번역 사업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한 미공보원 관계자는 주장했던 것이다.⁸⁴⁾

그뿐만 아니라, 주한 미공보원의 1954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한일관계 정상화 정책과 관련하여, 주한 미공보원 관계자들이 한국의 의견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확대하면서, 주일 미공보원의 후원으로 출간된 수종의 일본어 번역서들을 주문해 교육자, 언론인, 문화계 지도자, 정부 관리, 국군 장교 등에게 증정했는데,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도서들을 다시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⁸⁵⁾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 미공보원은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쿄와 교토 주재 미문화원에 미국 도서의 한국어 번역본 일습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이 주한 미공보원은 일본어 번역본을 다양한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미국 도서에 대한 한국 독자의 수요를 확인하거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험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한국어 번역본의 대체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타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의 의견지도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선물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52년에 이승만 정부가 취한 일본 서적 수입 단속 조치였다(경향신문, 1952. 3. 16).⁸⁶⁾

83)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Korea to USIA, December 28,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84) Ibid., p. 2. 이외에도, 주한 미공보원은 동경 주재 미공보원이 발행하는 『미국도서월간비평』을 매달 200부씩 구입해서 한국의 출판업자, 편집자, 대학교수와 작가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는데, 이 일본어 월간지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선물이었다고 한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January 25, 1954,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85) Despatch from USIS, Seoul to USIA, March 8, 1955, Subject: Semi-Annual USIS Report, July 1-December 31, p. 7.

86)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전시에 일본 서적 잡지 등의 무분별한 유입이 건전한 국내 출판문화를 위협하고 고유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위험 때문에 수입 단속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한 미공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관리들은 그것이 참고 서적이거나 대학원 교재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선물용으로 배부되기만 한다면, 굳이 일본어 번역서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⁸⁷⁾

5. 맺음말: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성과와 의미

미국정부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다른 매개 요인들을 배제하고, 사람들이 특정한 번역서들을 읽고 그 의식 속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도서번역 사업의 현지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본부는 현지 공관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또한 본부의 담당 부서는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의 성과들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킨 설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성과는 대체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번역 도서의 종수나 발행부수 혹은 판매부수, 그리고 그 사업이 현지 출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담을 수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업의 주요 표적 수용자였던 사회 각계의 엘리트나 지식층, 그리고 현지 대중들의 의식 속에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논의 수준을 넘어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의 지식·문화 영역이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이 가질 수 있었던 영향이나 의미를 제한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해방과 전쟁 이후에 한국에는 지식의 공백기 혹은 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한다(박지영, 2010).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도서 공급이 원천적으로 중단된 데다가 이승만정부가 강력한 배일주의 정책으로 일본 서적의 번역과 수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일본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유입이 사실상 거의 봉쇄되었고, 국내에서는 일제 치하에서 지식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진 전문 지식층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남북 분단으로 인해 더욱 빈약해졌으며, 더욱이 지식 보급과 정보 전달의 가장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는 도서를 생산하는 출판업계의 기반이 크게 무너졌

87)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Korea to USIA, December 28, 1953, RG 306, Entry P 50, Container 11, p. 2.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 한국에서는 번역이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방편이라 생각되어, 당시를 ‘번역의 르네상스기’라고 칭할 만큼 활발하게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개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분명히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 주재 공관과 미국정부 기관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주한 미공보원은 1958년 3월에 대외공보국에 보낸 비망록에서, 일제하에서는 한국인들이 매년 1만5천여 종의 일본어 신간 도서를 접할 수 있었던 반면에, 현재는 매년 1,500여 종의 신간 도서가 출간되어 한국인들이 서구의 사회사상이나 선진적인 기술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서 번역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⁸⁸⁾ 물론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 규모는 수치상으로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같은 공문에서 미공보원은 1960회계연도에 50종의 번역 도서를 출판할 계획인데, 이것은 전체 출판 도서 종수의 대략 3%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한국전쟁으로 출판 산업의 기반이 파괴되었던 1950년대 전반에는 그 비중이 더 컸던 반면에,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미국대사관 공보관 헨더슨(1959)은 1950년대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현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수의 저서들이 필요”하지만, 출판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겪게 된 “중대한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미국의 문학,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의 반공 경험”을 공유하게 했으며, “법률, 정치학, 철학 및 기타 현대사상의 제 분야”에서 “진보를 위한 교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75쪽).

1961년도 주한 미공보원 감사보고서도 도서번역 사업의 성과를 논의하면서, 일부 번역서들이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탄총과 같은 (효과가 불명확한) 기술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확신과 공통된 신념으로 자유세계를 지향하는 근대적이고 단결된 한국 국민을 형성해나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 도서번역 사업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했다.⁸⁹⁾ 또한 지난 수년 간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이 매우 활기차고

88) Operations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March 13, 1958, RG 306, Entry P 61, Container 7.

89) Inspection Report of USIS Korea, October 25-November 24, 1961, by James L. Meader & Donald E. Wilson, Inspectors to USIA, November 24, 1961, p. 55.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번역 출판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젊은 지식인들이 번역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의 성과가 한국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명히 미국의 도서번역 사업은 특히 한국 출판 산업의 토대가 매우 취약했던 1950년대에 한국의 지배층과 지식인, 그리고 대중 독자들에게 서구의 사상이나 문예, 그리고 선진적인 학술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도서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라 저자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국과 세계에 관한 시각의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러한 도서들을 접한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일부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박지영(2010)이나 허은(2013)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번역서들을 접한 모든 한국인들이 미국정부의 의도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순응적인 태도나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으며, 소수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미국이나 서구에 대한 저항적 사유를 드러낸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허은(2013)이 예로 들었던 조효원(1954), 신일철(1961), 김준엽(1955) 등은 미공보원의 도서번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미국식) 근대를 보편으로 간주하여 ‘각 지역 민족사회의 특수성이 몰각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후진국의 민주화 경로는 미국식만이 유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탈식민화를 위한 근대화 달성을 과제로 상정”하면서도 “강대국의 원조가 식민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때 강한 배척을 받을 것을 경고”하기도 했던 것이다(허은, 2013, 595~599쪽). 분명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운 패권국가로 떠오른 미국의 모든 면에 압도되면서도, 지식인으로서 미국에 대한 일말의 비판적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들의 저항적 사유는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 해방 이후 미국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학술적 연구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사실상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대표적인 ‘민족사회의 특수성’으로 잔존하며, 심지어 국가의 자존과 관련된 외교·국방 정책마저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휘둘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당시 지식인들의 저항적 사유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참고 문헌

- 경향신문 (1952. 3. 16). 일서적 수입단속-이공보처장 판매자 등에 주의. 2면.
- 그레고리 헨더슨 (1959). 한미 간의 문화관계. <국제평론>, 2호, 67-76.
- 김균 (2007).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4권 3호, 40-75.
- 김성한(1963). 주간이라는 직함과 아름다운 추억. <사상계>, 10권 4호, 274-276.
- 김용권 (1967). 한국문학에 끼친 미국의 영향과 그 연구. <아세아연구>, 10권 2호, 135-149.
- 김준엽 (1957). 아시아 민족해방운동. <사상계>, 5권 3호, 130-140.
- 동아일보 (1956. 1. 22). 지지부진한 도서번역사업. 3면.
- 문교부 (1958). <문교개관>. 서울: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박지영 (2009). 해방기 지식장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대동문화연구>, 68권, 423-480.
- 박지영 (2010).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대동문화연구>, 79권, 477-514.
- 신일철 (1961). 소리없는 혁명. <사상계>, 9권 11호, 271-279.
- 신집호 (1959). 도서 번역 사업의 연혁과 전망. <문교월보>, 46호, 52-54.
- 이중연 (2005). <책, 사슬에서 풀리다: 해방기 책의 문화사>. 서울: 혜안.
- 장영민 (2009). 한국전쟁기 주한 미국공보원의 선전 정책. <군사>, 76호, 121-156.
- 장영민 (2011). 한국전쟁기 주한 미국공보원의 선전 활동: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7집, 123-160.
- 정진숙 (1997). <을유문화사50년사>. 서울: 을유문화사.
- 조효원 (1954). 아세아민족주의 정도를 위하여. <사상계>, 2권 11호, 107-119.
- 최덕교 편 (2004). <한국잡지백년 3>. 서울: 현암사.
-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허은 (2013).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균열: 미국정부의 도서계획과 한국사회 지식인의 인식. <민족문화연구>, 59호, 559-611.
- 홍효민 (1959. 3. 19). 근대문화와 번역사업. <경향신문>, 4면.
- Barnhisel, G. (2013). Cold warriors of the book: American book programs in the 1950s. *Book History*, 13(1), 185-217.
- Barnhisel, G. (2015). *Cold War modernists: Arts, literature, and American cultural diplomac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Barnhisel, G., & Turner, C. (Eds.) (2010). *Pressing the fight: Print, propaganda, and the Cold War*.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Blum, R. (1956). The work of the Asia Foundation. *Pacific Affairs*, 29(1), 46-56.
- Brazninsky, G. (2007).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나중남 (역) (2011).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서울: 책과함께.

- Cull, N. J. (2008).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ch, J. H. (2000). *Books as weapons: Propaganda, publishing, and the battle for global markets in the era of World War II*.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Kraske, G. E. (1985). *Missionaries of the book: The American library profession and the origins of United States cultural diplomac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Leary, C. (2012). The most careful arrangements for a careful fiction: a short history of Asia pictures. *Inter-Asia Cultural Studies*, 13(4), pp. 548-558.
- Osgood, K. (2006).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Richmond, Y. (2003). *Cultural exchange and Cold War: Raising the iron curtai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16. 5. 30. 게재확정일자: 2016. 7. 18. 최종수정일자: 2016. 7. 24.

The U.S. Government's Book Translation Program in Korea in the 1950s

Jae Young Cha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t with the U.S. government's book translation project as a part of its public diplomacy to gain the Korean people's 'minds and thoughts' in the midst of cultural Cold War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late 1950s. It was found that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was begun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though with minimum efforts, and reached its peak in the late 1950s. In general, the purposes of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in South Korea was as follows: to emphasize the supremacy of America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o criticize the irrationality of communism and conflicts in the communist societies; to increase the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U.S. foreign policies; to publicize the achievement of the U.S. people in the areas of arts, literature, and sciences. In the selection of books for translation, any ones were excluded which might contradict to U.S. foreign policy or impair U.S. images abroad. It must be noted that publications of a few Korean writers' books were supported by the project, if they were thought to be in service for its purposes. Even some Japanese books, which were produced by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in Japan, were utilized for the best effects of the project in South Korea. It may be conceded that the U.S. book translation project contributed a little bit to the compensation for the dearth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South Korea at that time. However, the project may have distorted the Korean people's perspectives toward the U.S. and world, owing to the book s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U.S. government's policy guidance.

KEYWORDS Cultural Cold War, Public Diplomacy, U.S. Book Translation Program, U.S. Information Service in Korea